

심혈관질환 II				번호: I - G - 2	
제 목	국문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건강 행위간 상관성			
	영문	The associati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 in a rural populatio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남진, 김창훈, 김현자, 조병희 ¹⁾ , 남정현 ²⁾ , 최보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²⁾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¹⁾			
	영문	Nam Jin Lee, Chang Hoon Kim, Hyun Ja Kim, Byoung Hee Cho ¹⁾ , Jung Hyun Nam ²⁾ , Bo Youl Choi Dep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¹⁾ , Dep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			
분 야	역 학 심혈관질환	발 표 자	이남진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연구목적</p> <p>스트레스는 고혈압, 관상 동맥성 심장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만성질환 발생에 직/간접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흡연 및 음주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을 유발시켜 만성 퇴행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p> <p>한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변경시키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효과를 중재할 수 있는 행위나 인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한다. 이처럼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이다. 사회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자들은 건강 위험인자와 함께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의 수준이나 질병발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인자의 효과를 변형, 수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논의하였다.</p> <p>이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의 발생에 직접&#228;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고,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생활습관요인에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효과와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p> <p>2. 연구방법</p> <p>1)자료수집</p> <p>2002년도 경기도 양평코호트 연구의 기반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64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 인구학적 특성, 건강행위(흡연, 음주, 운동, 수면과 비만)를 조사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과 자기 신뢰도, 우울, 일반 건강과 불안 등에 대하여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PWI-SF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고, 물질적 지지, 심리적 지지,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정서적/정보적 지지에 대해</p>					

여 19문항으로 구성된 MOS-SSS를 이용하여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자료 분석

건강행위변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의 건강행태 항목을 0(바람직한 경우) 또는 1(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 점수화하였다. Social Support 와 건강행위변수의 관련성, PWI-SF 와 건강행위변수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PWI-SF와 건강 관련 행위의 관련성은 사회적 지지를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295명으로 남자 112(38%)명, 여자183(6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51.5(± 10)세이었다. PWI-SF score는 평균 18.3 ± 10 로 26점 이상 22%, 26~11점 47.5%, 11점 이하 30.5%로 분포하였다. 사회적지지 score 는 평균 80.75 ± 19.4 로 97.5점 이상 19.32%, 97.5~67.2점 46.7%, 67.2점이하 33.3%로 분포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연령, 성을 보정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을 기준으로 중간, 높은 군의 odds ratio(OR)는 0.44 (0.26 - 0.73), 0.23 (0.12 - 0.45)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연령, 성을 보정하였을 때 흡연, 음주, 비만, 수면 등의 건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으며,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와의 관련성도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건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은 비만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음주와 수면이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들 간의 상호 관계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인 역동 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초기 단계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보다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보정하는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보다 많은 요인들을 반영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